

12

성령의 임재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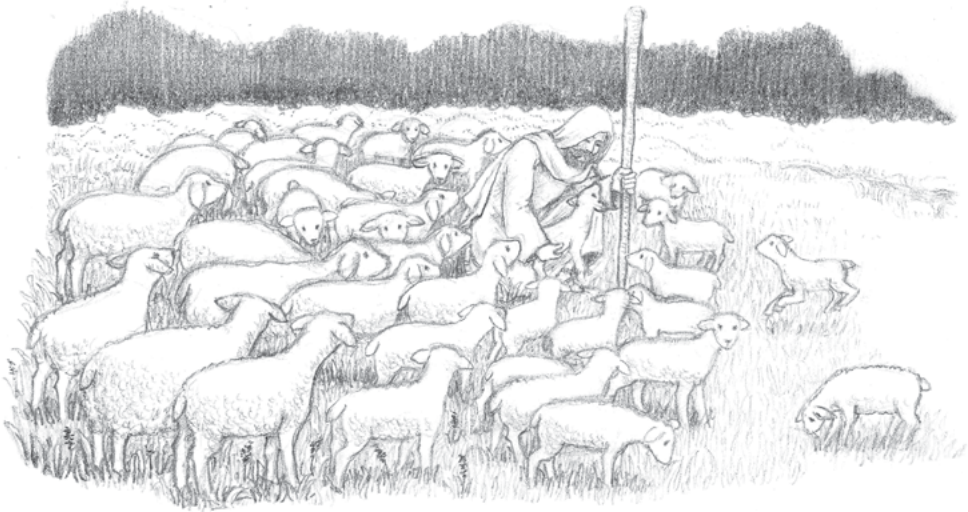
우리의 주인되시는 그리스도

행 2:22~42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23장 (그 사랑)



1.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2.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가 사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짐을 압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와 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을 얻으라 그리하면 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6~38)



을 이해하기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천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말세, 즉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생애와 사역, 우리를 대신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과 영화를 차례로 증언하며 그 증거로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라는 말이 예수님의 ‘신분’ 혹은 ‘지위’를 언급한 것이라면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사역)’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믿고 감사하면서도 그분을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실제로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행 5:30~31)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up Jesus whom you murdered by hanging on a tree. Him God has exalted to His right hand to be Prince and Savior, to give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 (Ac 5:30~31)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롬 16:18).

2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되시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행 2:36~38).

3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인가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눅 17:7~10)?

4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나의 생활을 되돌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봅시다(롬 12:11, 엡 6:5~7).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19:9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행 2:3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롬 10: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롬 10:10

↓

골 2:6

↓

골 2:7

↓

벧전 3:15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스런 미래 본향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쾌락과 고통, 기쁨과 슬픔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때에라도 미래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고도 순전한 행복을 고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 참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향에서 우리가 누릴 분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부의 죄와 외부의 악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저편에서 우리는 죄의 성품과 악한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품성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태도, 시기하는 생각, 때로 명백한 악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죄 없고 순결한 본성을 지닐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완전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완전히 받으실 만하게 됨으로써 지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가 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미처 끝나지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 이렇게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처럼(히 11:13~22) 참으로 고대하고 기대할 만합니다.



질문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 즉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십보라가 차돌을 취해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니까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결말을 보면, 그 이유가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나면 8일만에 할례를 행합니다(창 17:12).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구원 받은 사람이 옛 사람과 옛 육신의 모습을 벗는 하나의 표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